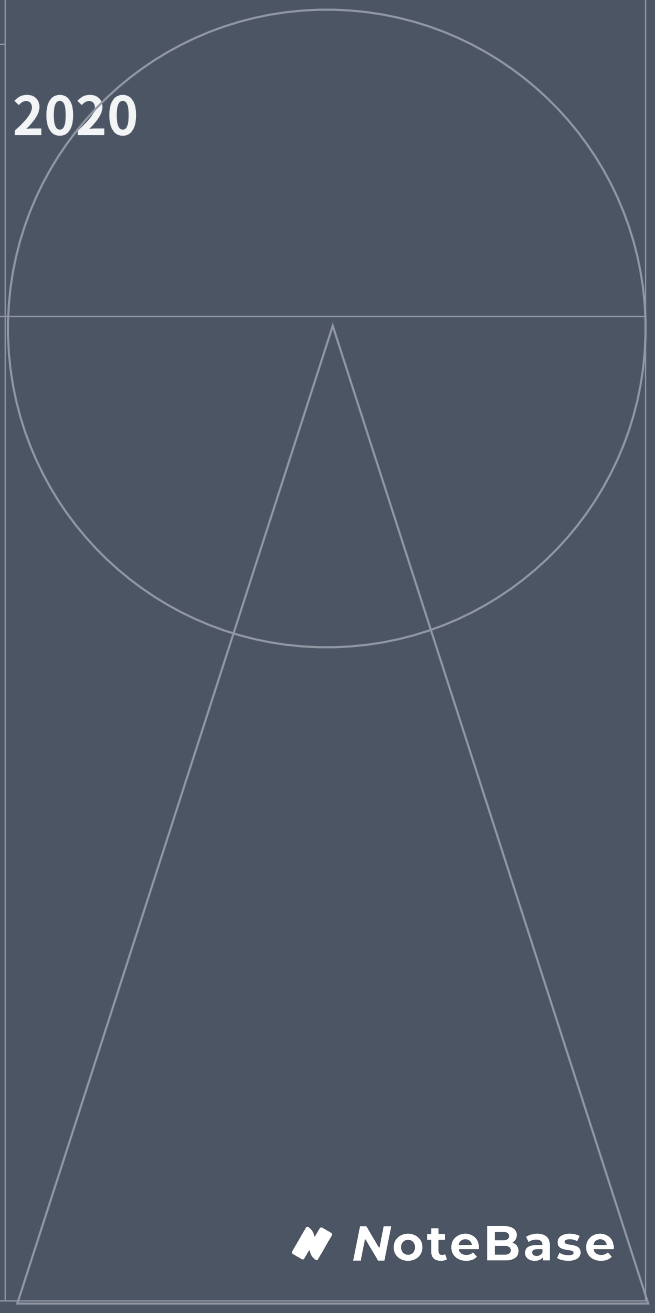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20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20

1. 다음 중 우리말 어법에 맞게 쓴 것은?

① 그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범죄자이다.
② 너보다 내 생일이 이르다.
③ 쌍둥이인데도 둘의 성격이 전혀 틀리다.
④ 이 자리를 빌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⑤ 공부한 만큼 정답을 많이 맞추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조사와 서술어를 쓰고, 뜻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로서’는 지위·신분·자격을, ‘로써’는 수단·도구를 나타낸다.
‘다르다’는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고, ‘틀리다’는 사실이나 계산 등이 맞지 않다는 뜻이다.
‘빌리다’는 자리나 기회를 이용한다는 뜻이며, ‘맞히다’는 문제의 답을 알아내어 맞게 답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사람으로서’는 사람이라는 지위·자격을 나타내므로 조사 ‘로서’를 바르게 썼다. ‘사람으로써’처럼 수단을 나타내는 ‘로써’로 바꾸면 안 된다.
② X — 비교 대상이 ‘너’와 ‘내 생일’로 서로 대응하지 않는다. ‘너보다 내 생일이 이르다’는 ‘네 생일보다 내 생일이 이르다’ 또는 ‘나는 너보다 생일이 이르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쌍둥이 두 사람의 성격이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므로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를 써야 한다. ‘둘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④ X — 자리나 기회를 이용한다는 뜻에는 ‘빌다’가 아니라 ‘빌리다’를 쓴다. ‘이 자리를 빌어’는 ‘이 자리를 빌려’로 고쳐야 한다.
⑤ X — 문제의 정답을 알아내어 맞게 답했다는 뜻에는 ‘맞추다’가 아니라 ‘맞히다’를 쓴다. ‘정답을 많이 맞추었다’는 ‘정답을 많이 맞히었다(맞혔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로서/로써’, ‘다르다/틀리다’, ‘빌다/빌리다’, ‘맞추다/맞히다’처럼 일상 발음과 쓰임이 비슷한 말을 혼동하기 쉽다. 특히 ②는 단어 자체보다 비교되는 두 대상이 같은 종류인지 살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사는 지위·자격인지 수단·도구인지 구별하고, 비교 표현은 앞뒤 대상이 서로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서술어는 문맥의 뜻을 풀어 ‘같지 않다=다르다’, ‘기회를 이용하다=빌리다’, ‘정답을 알아내다=맞히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격은 ‘로서’, 같지 않으면 ‘다르다’, 기회는 ‘빌려’, 정답은 ‘맞히다’이다.

NoteBase

2.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너의 죄가 큰 바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
② 백성들이 식민지 하에서 받은 고통을 어찌 알겠는가?
③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는 것으로 처리했다.
④ 이제 일이 잘 되어 가는 듯해.
⑤ 그녀를 보고 있으면 바보 같이 계속 웃음이 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따라 의존 명사와 연결 어미를 구별하고, 접미사와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지만, 어미와 접미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보조 용언은 원칙적으로 앞말과 띄어 쓴다.
'-ㄴ바'가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며 뒤 절을 이끄는 연결 어미이면 앞말에 붙이고, '바'가 일·방법·사실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면 띄어 쓴다.
'-하(下)'와 '-같이'가 접미사로 쓰이면 앞말에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큰 바'의 '-ㄴ바'는 '죄가 크므로'라는 까닭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큰바'로 붙여 써야 한다. 올바른 표현은 '너의 죄가 큰바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이다.
② X — '하(下)'는 일부 명사 뒤에서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식민지하에서'로 붙여 써야 한다. 올바른 표현은 '백성들이 식민지하에서 받은 고통을 어찌 알겠는가?'이다.
③ X — '없다'는 독립된 형용사이므로 앞의 명사 '이유'와 띄어 쓴다. '이유없는'이 아니라 '이유 없는'으로 써야 하므로, 올바른 표현은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이다.
④ O — '되어 가다'에서 '가다'는 진행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므로 '되어 가는'으로 띄어 쓴다. '듯하다'도 추측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므로 '가는 듯해'로 띄어 쓴 '이제 일이 잘 되어 가는 듯해.'가 옳다.
⑤ X — '같이'가 일부 명사 뒤에서 '그런 특징이 있게'의 뜻을 더할 때에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인다. '바보 같이'가 아니라 '바보같이'로 써야 하므로, 올바른 표현은 '그녀를 보고 있으면 바보같이 계속 웃음이 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바'와 ④의 '듯'이 명사처럼 보여 무조건 띄어 쓴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①의 '-ㄴ바'는 뒤 절에 까닭을 이어 주는 어미이므로 붙이고, ④의 '듯하다'는 보조 용언이므로 띄어 쓴다. 또한 ②의 '-하'와 ⑤의 '-같이'는 이 문맥에서 접미사이므로 붙여 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해당 말이 독립된 뜻을 지닌 의존 명사인지, 문법적 기능을 더하는 어미·접미사인지 확인한다. 의존 명사는 띄고 어미·접미사는 붙이며, 본용언 뒤에서 뜻을 보충하는 보조 용언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암기 포인트

의존 명사는 띄고, 어미·접미사는 붙이며, 보조 용언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NoteBase

3. 다음 중 밑줄 친 관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를 마무리하니 마침내 오금을 펴고 지낼 수 있게 되었다. → 무엇을 하고 싶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이

② 오늘 처녀에게 마수를 걸었으니 장사가 잘되겠다며 아침부터 기분이 들떴다. → 장사를 시작하여 처음 손님에게 물건을 팔았으니

③ 벌써 몇 시간째 변죽만 울리니, 그러지 말고 이제 딱 부러지게 용건을 말하시오. → 의도를 바로 알 수 없게 핵심을 비켜 말하니

④ 저 산에서 돌을 캤다가 동티가 난 사람들이 있었다. → 가만히 두었으면 좋았을 일을 쓸데없이 건드려서 잘못된

⑤ 눈치 채지 않게 얼버무리느라고 내가 학을 뗐다. → 성가신 일을 겪느라 무진 애를 먹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맥에 쓰인 관용어의 실제 뜻과 제시된 풀이가 일치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관용어는 둘 이상의 말이 결합하여 낱말의 겉뜻과 다른 특별한 뜻으로 굳어진 표현이다. 따라서 구성 낱말을 따로 해석하지 않고 문맥과 사전에 굳어진 의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오금을 펴다'는 마음을 놓고 자유롭게 지낸다는 뜻이고, '오금이 쑤시다'는 무엇을 하고 싶어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오금을 펴다'는 마음을 놓고 자유롭게 지낸다는 뜻이다. 제시된 풀이인 '무엇을 하고 싶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다'는 '오금이 쑤시다'의 뜻에 해당한다. 틀린 풀이 → '마음을 놓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가 올바르다.
② O — '마수를 걸다'는 장사를 시작하여 처음으로 물건을 판다는 뜻이다. 처녀에게 첫 물건을 팔았다는 문맥과 제시된 풀이가 일치한다.
③ O — '변죽을 울리다'는 바로 요점을 말하지 않고 변두리부터 말을 꺼낸다는 뜻이다. 핵심을 비켜 말하여 의도를 곧바로 알 수 없게 한다는 풀이가 알맞다.
④ O — '동티가 나다'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공연히 건드려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다. 산에서 돌을 캔 뒤 탈이 생긴 상황과 제시된 풀이가 일치한다.
⑤ O — '학을 떼다'는 몹시 시달리거나 어려움을 겪어 진저리가 난다는 뜻이다. 들키지 않게 얼버무리느라 몹시 애를 먹었다는 풀이가 문맥에 맞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오금을 펴다'를 형태가 비슷한 '오금이 쑤시다'와 혼동하기 쉽다. '펴다'는 억눌린 상태에서 벗어나 마음 놓는 의미이고, '쑤시다'는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만있지 못하는 의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용어의 핵심 동사까지 정확히 확인한 뒤, 굳어진 뜻을 문맥에 대입한다. 형태가 비슷한 표현은 한 단어의 차이로 뜻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금을 펴다'와 '오금이 쑤시다'처럼 짝지어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오금을 펴다=마음 놓고 자유롭게 지내다, 오금이 쑤시다=하고 싶어 가만있지 못하다.

NoteBase

4. 다음 중 음소의 개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① 닭장
② 맨입
③ 쥐덫
④ 값어치
⑤ 웅덩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단어의 실제 발음을 자음과 모음의 최소 단위인 음소로 나누어 그 개수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음소는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며 자음과 모음이 이에 해당한다. 음소의 개수는 표기가 아니라 실제 발음을 기준으로 세며, 초성 자리의 소리 나지 않는 'ㅇ'은 음소에 포함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닭장'은 [닥짱]으로 발음하며, ㄷ·ㅏ·ㄱ·ㅉ·ㅏ·ㅇ의 6개 음소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5개가 아니라 6개이다.
② X — '맨입'은 [맨닙]으로 발음하며, ㅁ·ㅐ·ㄴ·ㄴ·ㅣ·ㅂ의 6개 음소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5개가 아니라 6개이다.
③ O — '쥐덫'은 [쥐덛]으로 발음하며, ㅈ·ㅟ·ㄷ·ㅓ·ㄷ의 5개 음소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네 단어는 모두 6개이므로 음소의 개수가 다른 하나이다.
④ X — '값어치'는 [가버치]로 발음하며, ㄱ·ㅏ·ㅂ·ㅓ·ㅊ·ㅣ의 6개 음소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5개가 아니라 6개이다.
⑤ X — '웅덩이'는 [웅덩이]로 발음한다. 초성의 소리 나지 않는 'ㅇ'을 제외하면 ㅜ·ㅇ·ㄷ·ㅓ·ㅇ·ㅣ의 6개 음소이므로, 5개가 아니라 6개이다.

오답 포인트

글자에 적힌 자모를 그대로 세면 '닭장'의 겹받침이나 '값어치'의 표기에 끌려 개수를 잘못 판단하기 쉽다. 실제 발음으로 바꾼 뒤 소리 나는 자음과 모음만 세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단어를 표준 발음으로 바꾼 뒤, 발음된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분리하여 센다. 연음·된소리되기·받침 발음의 변화를 반영하고, 음가가 없는 초성 'ㅇ'은 제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음소 개수는 표기 자모 수가 아니라 실제로 소리 나는 자음과 모음의 수이다. 쥐덫만 5개, 나머지는 6개이다.

NoteBase

5. 다음 중 국어의 로마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희망: huimang
② 맏형: mathyeong
③ 함경북도: Hamgyeongbuk-do
④ 음력: eumnyeok
⑤ 먹거리: meokkeori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모음과 자음을 적고, 발음 변화 가운데 표기에 반영하는 것과 반영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정해진 대응 방식에 따라 적으며,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먹거리'의 발음이 [먹꺼리]이더라도 로마자 표기는 meokgeori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희망'은 모음 ㅢ를 ui로, ㅏ를 a로 적으므로 huimang이 맞다.
② O — '맏형'은 맏을 mat, 형을 hyeong으로 적으므로 mathyeong이 맞다.
③ O — '함경북도'는 각 음절을 Hamgyeongbuk으로 적고 행정 구역 단위 '도'를 붙임표로 분리하여 Hamgyeongbuk-do로 적을 수 있다.
④ O — '음력'은 [음녁]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표기에 반영되므로 eumnyeok이 맞다.
⑤ X — 틀린 부분은 '먹거리'를 meokkeori로 적어 된소리되기를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올바른 표기는 meokgeori이다.

오답 포인트

'먹거리'가 실제로 [먹꺼리]처럼 발음된다는 점 때문에 ⑤의 kk를 맞는 표기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g로 적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제 발음만 따라 적지 않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 규정을 적용한다. 특히 된소리되기로 생긴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먹거리 [먹꺼리] → meokgeori: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NoteBase

6. 다음 글을 읽고 이해한 것으로 옳은 것은?

> 하이퍼텍스트란 쉽게 생각하면 주석들이 끝없이 연결되어 더 이상 본문과 주석의 구분이 불가능해진 텍스트를 의미한다. 이제까지는 글에서 주석은 어디까지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종속적인 기능만을 지니고 있었다. 본문은 순차적인 흐름으로 이어져간다. 본문은 저자의 논리에 따라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다가 중간 중간 저자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따로 표시를 해놓고 주석을 단다. 그러면 독자들은 그 주석을 통해 부가적인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독자들이 그 주석을 통해 아무리 흥미 있는 어떤 사실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자들은 그것을 보조적인 설명으로 취급한다. 독자들은 이러한 약속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태로 책을 읽어나간다. 주석을 계속 추적해나가는 것은 책 읽기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 취급된다. 주석은 주석일 뿐이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성이란 이러한 본문과 주석의 구분을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하는 비선형적 텍스트성이다. 글 읽기의 순차가 정해진 것도 없고, 가지를 치고 독자들에게 선택을 허용한다. 텍스트들은 끈들에 의해 연결되어 있을 뿐이며 어느 것이 중심이고 어느 것이 가지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독자/사용자의 몫이다. 심지어는 독자/사용자조차도 어느 것이 중심이고 어느 것이 가지인지 알지 못한다. 그저 자신의 관심이 가는 대로 움직일 뿐이다.

① 하이퍼텍스트에서 본문 읽기와 주석 읽기는 별개의 행위이다.
② 하이퍼텍스트에서 주석은 독자에게 보조적 설명으로 간주된다.
③ 독자는 하이퍼텍스트에서 본문을 중심 의미로 보고 읽어나간다.
④ 하이퍼텍스트성은 읽기의 순차가 없는 선택적 읽기를 허용한다.
⑤ 비선형적 텍스트성은 독자보다 작가 중심의 글 읽기를 강조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통적인 선형적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의 차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하이퍼텍스트에서는 본문과 주석의 위계, 중심과 가지, 고정된 읽기 순서가 해체된다는 점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선형적 텍스트는 본문이 중심이고 주석은 본문을 보충하는 종속적 설명이며, 저자의 논리에 따른 순차적인 읽기를 전제로 한다.
하이퍼텍스트는 텍스트들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고정된 읽기 순서가 없고, 독자에게 이동 경로의 선택을 허용한다. 따라서 무엇이 중심이고 가지인지도 독자·사용자의 관심과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본문 읽기와 주석 읽기는 별개의 행위이다'이다. 이는 주석 추적을 책 읽기와 구별되는 행위로 보던 기존 선형적 텍스트의 특징이다. 하이퍼텍스트에서는 본문과 주석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므로, 올바르게는 '본문 읽기와 주석 읽기는 별개의 행위로 구분되지 않는다'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하이퍼텍스트에서 주석은 독자에게 보조적 설명으로 간주된다'이다. 주석을 본문에 종속된 보조적 설명으로 취급하는 것은 기존 텍스트의 방식이다. 올바르게는 '하이퍼텍스트에서는 본문과 주석의 위계적 구분이 무의미해진다'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독자는 하이퍼텍스트에서 본문을 중심 의미로 보고 읽어나간다'이다. 글은 독자·사용자가 어느 것이 중심이고 어느 것이 가지인지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독자는 자신의 관심과 선택에 따라 중심과 가지를 정하며 읽어나간다'이다.
④ O — 글은 하이퍼텍스트에 정해진 읽기 순서가 없고 독자에게 선택이 허용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하이퍼텍스트성이 읽기 순서가 없는 선택적 읽기를 허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⑤ X — 틀린 표현은 '독자보다 작가 중심의 글 읽기를 강조한다'이다. 글은 중심과 가지의 결정이 독자·사용자의 몫이며 저자조차 이를 미리 알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비선형적 텍스트성은 작가 중심이 아니라 독자·사용자의 선택이 중심이 되는 읽기를 강조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본문 초반의 '본문은 중심이고 주석은 종속적 설명'이라는 내용을 하이퍼텍스트의 특징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존 선형적 텍스트의 읽기 방식을 설명한 것이며, '그러나' 뒤부터 하이퍼텍스트의 특징이 제시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조 표지인 '그러나'를 기준으로 앞뒤를 나눈다. 앞부분의 본문 중심·주석 종속·순차적 흐름은 선형적 텍스트의 특징이고, 뒷부분의 구분 해체·순서 없음·독자의 선택은 하이퍼텍스트의 특징이다.

암기 포인트

선형 텍스트는 저자·순서·본문 중심이고, 하이퍼텍스트는 독자·선택·연결 중심이다.

NoteBase

7. 다음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억은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우리가 흔히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술 기억이다. 서술 기억은 의미, 이해,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에 대한 기억인 '의미 기억'과, 일화에 대한 기억인 '일화 기억'으로 구성된다. 일화 기억은 우리 자신과 관련이 있을 때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므로 '자전 기억'이라고도 한다. 다른 누군가가 본 영화를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다.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에 대한 예를 들자면, 프랑스어 지식은 의미 기억이고, 프랑스어 수업은 일화 기억이다.
>
> 이와 달리, 감각 또는 운동 기능에 대한 기억은 절차 기억 또는 '습관'이라고 한다. 플루트 연주곡을 익히는 것은 의미 기억인 반면, 플루트 연주법을 배우는 것은 절차 기억이다.
>
> 대부분의 서술 기억은 해마라는 측두엽 영역에서 습득되고 형성된다. 해마는 내후각피질과 편도체에 연결되어 있다. 계통발생학적으로 오래된 피질 조직인 해마는 훨씬 더 최근에 생겨난 조직인 내후각피질이나 편도체 등의 도움을 받아 모든 서술 기억을 여러 피질 영역에 저장한다.
>
> 절차 기억은 소뇌와 기저핵에서 만들어진다. 기저핵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미상핵이다. 중독을 일으키는 기억은 중독 물질을 갈구하는 동안 망상이나 섬망을 일으키지만 절차 기억으로 여겨지며, 해부학적으로 기저핵과 연결된 측중격핵에서 형성되어 저장된다. 중독의 일부 측면에 일조하는 편도체 역시 개체발생학적으로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기저핵과 연결되어 있다.

① 일화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해마에서 형성된다.
② 내후각피질은 뇌에서 가장 나중에 생겨난 피질 조직이다.
③ 플루트 연주곡을 익히는 것은 지식에 대한 기억이다.
④ 중독을 일으키는 기억은 습관과 관련되어 있다.
⑤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의 형성에는 모두 편도체가 관여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의 성격 및 형성에 관여하는 뇌 부위를 지문의 표현에 맞게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서술 기억은 의미·이해·개념을 바탕으로 한 의미 기억과 개인이 겪은 일화 기억으로 구성되며, 주로 해마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절차 기억은 감각이나 운동 기능에 관한 기억으로, 습관이라고도 하며 소뇌와 기저핵에서 만들어진다. 해마는 계통발생학적으로 오래된 조직이고, 내후각피질·편도체 등은 해마보다 더 최근에 생겨난 조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일화 기억은 서술 기억에 속하고, 지문은 대부분의 서술 기억이 해마에서 습득되고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뇌에서 가장 나중에 생겨난 피질 조직'이다. 지문은 해마가 계통발생학적으로 오래된 피질 조직이고 내후각피질이나 편도체 등이 해마보다 훨씬 더 최근에 생겨난 조직이라고 했을 뿐, 내후각피질이 뇌에서 가장 나중에 생겼다고 하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내후각피질은 해마보다 훨씬 더 최근에 생겨난 조직이다'라고 해야 한다.
③ O — 지문은 플루트 연주곡을 익히는 것을 의미 기억의 예로 제시하므로 지식에 대한 기억에 해당한다.
④ O — 지문은 중독을 일으키는 기억을 절차 기억으로 여기며, 절차 기억은 습관이라고도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중독 기억은 습관과 관련된다.
⑤ O —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은 모두 서술 기억에 속한다. 지문에 따르면 서술 기억은 해마가 내후각피질·편도체 등의 도움을 받아 형성한 뒤 여러 피질 영역에 저장되므로 두 기억의 형성에는 모두 피질 조직이 관여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지문의 비교 표현인 '해마보다 훨씬 더 최근에'를 '뇌에서 가장 나중에'라는 최상급 표현으로 과장했다. 비교 대상과 범위를 바꾼 선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 일치 문제에서는 '보다', '대부분', '모든' 같은 범위 표현을 먼저 확인한다. 지문이 두 대상만 비교했는데 선지가 '가장'이라는 최상급으로 바꾸면 그 최상급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실제로 있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서술 기억은 해마 중심, 절차 기억은 소뇌·기저핵 중심이며, '해마보다 최근'은 '뇌에서 가장 최근'과 같지 않다.

NoteBase

8. 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옳은 것은?

> '검사의 칼날'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메스로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보다는 등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칼싸움을 하는 무림의 검객을 더 강력하게 마음 속에 떠올린다. 어떻게 이러한 연상이 가능할까? 그것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라는 '법률 행위'를 '싸움/전쟁' 프레임을 통해 이해하려는 은유적 사고의 결과이다.
>
> 검사는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하여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며 공판 과정에서 법원에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형의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법관이다. '검사'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보통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이 정의를 떠올리기보다 조직 폭력배를 비롯한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이 정의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근원영역이라 불리는 구체적이고 단순한 개념을 통해서 목표영역이라 불리는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을 은유적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사고방식 때문이다.

① 은유적 표현은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시켜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이다.

② 은유적 표현은 일반인들이 사전적 정의를 모르는 데서 발생한다.

③ 사람들은 사물의 개념을 '싸움/전쟁' 프레임을 통해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④ 사람들은 보통 근원영역을 목표영역으로 바꾸어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⑤ 사람들은 추상적 개념을 빌려 구체적 개념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은유적 사고에서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은유적 사고는 구체적이고 단순한 근원영역의 개념을 이용하여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목표영역의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 글에서는 '싸움·전쟁'이 근원영역이고, 검사의 '수사와 기소라는 법률 행위'가 목표영역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글은 은유적 표현이 복잡한 목표영역을 단순한 근원영역을 통해 이해하게 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하여 이해하려는 방식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일반인들이 사전적 정의를 모르는 데서 발생한다'이다. 은유적 표현은 정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을 구체적이고 단순한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은유적 사고에서 발생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물의 개념'을 '싸움·전쟁' 프레임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부분이다. 글에서 '싸움·전쟁' 프레임으로 이해되는 것은 모든 사물의 개념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와 기소라는 법률 행위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근원영역을 목표영역으로 바꾸어 이해한다'이다. 실제로는 근원영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원영역의 개념을 통해 목표영역의 개념을 이해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추상적 개념을 빌려 구체적 개념을 이해한다'이다. 실제로는 그 반대로 구체적이고 단순한 근원영역의 개념을 빌려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목표영역의 개념을 이해한다.

오답 포인트

④와 ⑤는 은유적 사고의 방향을 거꾸로 제시한다. 또한 ③은 글에 나온 '싸움·전쟁' 프레임을 모든 사물의 개념에 적용되는 일반적 방식처럼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은유 문제에서는 먼저 '무엇을 이용하여 무엇을 이해하는가'를 찾는다. 이해에 빌려 쓰는 구체적 개념이 근원영역이고, 설명하려는 추상적 개념이 목표영역이다.

암기 포인트

구체적·단순한 근원영역으로 추상적·복합적인 목표영역을 이해한다.

NoteBase

9.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 바로 날도 저물어서,
>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헌 삿을 깐,
>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 또 문 밖에 나가디두 않구 자리에 누워서,
>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쌔김질하는 것이었다.
>
>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서 -

① 현실의 고난을 초극하려는 지사적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②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토속적 소재와 방언을 사용해서 외로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④ 유랑하는 삶을 살던 화자가 타지에서 삶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다.
⑤ 시의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시어가 등장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태도, 시상 전개 방식, 표현상 특징을 작품의 구체적인 시어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화자는 아내와 집을 잃고 가족과도 멀리 떨어진 채 낯선 타지의 쓸쓸한 방에 머물며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을 되새긴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고독의 표출은 현실의 고난에 맞서 이를 극복하려는 지사적 의지와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슬픔과 외로움을 소처럼 되새기고 있을 뿐, 현실의 고난에 맞서거나 이를 초극하려는 행동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현실의 고난을 초극하려는 지사적 의지'이며, 올바르게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을 되새기는 내면적 성찰'이라고 해야 한다.
② O — '나는'으로 이어지는 화자의 생각과 회상을 따라 아내와 집의 상실, 가족과의 이별, 낯선 방에서의 생활, 자신의 슬픔에 대한 성찰로 시상이 전개된다.
③ O — '삿', '준', '덜옹배기', '북덕불', '손깍지'와 같은 토속적 소재와 방언이 낯선 방의 생활상을 구체화하며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정서를 드러낸다.
④ O — 아내와 집을 잃고 부모·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 헤매는 화자가 타지의 '목수네 집' 방에서 자신의 삶과 슬픔을 성찰한다.
⑤ O —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와 같은 시어가 저물녘에서 추운 밤으로 이어지는 시간적 배경을 드러낸다.

오답 포인트

①은 화자가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고난 극복 의지로 확대 해석하게 만든다. 그러나 작품에 나타난 것은 투쟁이나 극복의 결의가 아니라 상실한 삶을 돌아보며 슬픔과 외로움을 삭이는 태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자의 태도를 판단할 때에는 처지와 의지를 구분한다. 고난·가난·외로움이 제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극복 의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맞섬·결단·행동을 나타내는 시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이 작품의 화자는 고난을 투쟁적으로 초극하는 인물이 아니라, 낯선 방에서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을 되새기는 인물이다.

NoteBase

10. 다음 시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새벽마다 고요히 꿈길을 밟고 와서
머리맡에 찬물을 ㉡ 쏴아 퍼붓고는
그만 가슴을 디디면서 멀리 사라지는
북청 물장수.

㉢ 물에 젖은 꿈이
북청 물장수를 부르면
그는 ㉣ 삐걱삐걱 소리를 치며
온 자취도 없이 다시 사라져 버린다.

날마다 아침마다 기다려지는
㉤ 북청 물장수.

- 김동환, 「북청 물장수」 -

① ㉠: 대상의 행위가 반복적임을 알 수 있다.
② ㉡: 물 붓는 소리의 시원함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③ ㉢: 현실과 꿈이 구분되지 않은 몽롱한 상태를 의미한다.
④ ㉣: 물장수의 단호한 태도에 대한 슬픔을 드러낸다.
⑤ ㉤: 명사구로 마무리함으로써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반복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 감각적 심상, 의성어, 명사구 종결이 시에서 만드는 효과를 구체적인 시어와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반복 표현은 '마다'처럼 되풀이되는 시간이나 행동을 드러낸다. 감각적 심상은 소리·촉감 등 감각으로 장면을 느끼게 하며, 의성어는 실제 소리를 본떠 나타낸 말이다. 명사구 종결은 문장을 명사 중심으로 끝내어 의미와 정서를 오래 남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의 '새벽마다'에서 북청 물장수가 매일 새벽 찾아오는 행위의 반복성을 알 수 있다.

② O — ㄴ의 '찬물을 쏟아 퍼붓고는'은 물을 붓는 소리와 찬물의 서늘하고 시원한 감각을 함께 떠올리게 하는 감각적 표현이다.

③ O — ㄷ의 '물에 젖은 꿈'은 물장수가 퍼붓는 물로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표현하여 현실과 꿈의 경계가 아직 선명하지 않은 몽롱한 상태를 드러낸다.

④ X — ㄹ의 '빼걱빼걱'은 물장수의 단호한 태도를 나타내거나 그 태도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물장수의 단호한 태도에 대한 슬픔'이며, 올바르게는 물장수가 멀어질 때 들리는 물지게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로 청각적 심상을 형성한다고 해야 한다.

⑤ O — ㅁ은 마지막 행을 '북청 물장수'라는 명사구로 끝낸다. 이 종결 방식은 '기다려지는' 마음에 여운을 주어 화자의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포인트

④의 '소리를 치며'를 사람의 단호한 말투나 외침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빼걱빼걱'은 물장수의 성격이나 태도가 아니라 물지게가 내는 소리를 직접 흉내 낸 표현이므로, 화자의 슬픔까지 연결할 근거도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표현의 효과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그 시어가 시간 표현인지, 감각어인지, 의성어인지, 종결 방식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선지가 제시한 정서나 태도가 주변 시구에서 실제로 뒷받침되는지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마다'는 반복, '빼걱빼걱'은 물지게 소리, 명사구 종결은 여운과 지속이다.

NoteBase

11. 다음 중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라[실라]: 동화 현상이 있다.
② 할는지[할른지]: 동화 현상이 있다.
③ 앓다[알타]: 탈락, 동화 현상이 있다.
④ 긁는[긍는]: 탈락, 동화 현상이 있다.
⑤ 광한루[광:할루]: 동화 현상이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제 발음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을 동화, 탈락, 축약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동화는 한 음운이 이웃한 음운의 성질을 닮는 교체 현상이다. 탈락은 원래 있던 음운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이고,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특히 'ㅎ'과 평음 'ㄱ·ㄷ·ㅈ'이 만나 거센소리 'ㅋ·ㅌ·ㅊ'이 되는 것은 축약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신라[실라]'는 'ㄴ'이 뒤의 'ㄹ'을 닮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동화 현상이 있다.
② O — '할는지[할른지]'는 'ㄴ'이 앞의 'ㄹ'을 닮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동화 현상이 있다.
③ X — '앓다[알타]'에서는 받침의 'ㅎ'과 뒤의 'ㄷ'이 합쳐져 'ㅌ'이 된다. 틀린 표현은 '탈락, 동화 현상이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ㅎ+ㄷ→ㅌ의 축약 현상이 있다'이다.
④ O — '긁는[긍는]'은 겹받침 'ㄺ'에서 'ㄹ'이 없어지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고, 남은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탈락과 동화가 모두 있다.
⑤ O — '광한루[광할루]'는 'ㄴ'이 뒤의 'ㄹ'을 닮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동화 현상이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의 [알타]에서 표면상 'ㅎ'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탈락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ㅎ'은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의 'ㄷ'과 합쳐져 'ㅌ'이 되므로 축약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음 전후의 음운을 대응시킨다. 한 음운이 이웃 음운을 닮으면 동화, 음운이 없어지면 탈락, 두 음운이 하나의 새 음운으로 합쳐지면 축약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닮으면 동화, 사라지면 탈락, 둘이 하나가 되면 축약이다. ‘ㅎ+ㄷ→ㅌ’은 축약이다.

NoteBase

12.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① 이 손 놔!
② 내 동생은 한글을 스스로 깨우쳤다.
③ 그들은 우리에게 반역자의 누명을 씌우려 했다.
④ 가슴을 에는 듯한 슬픔이었다.
⑤ 자네 덕에 생일을 잘 쇄서 고맙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음이나 형태가 비슷한 말의 정확한 뜻과 활용을 구별하여 문맥에 맞는 표기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깨치다'는 일의 이치나 글을 스스로 깨달아 알거나 익힌다는 뜻이다. '깨우치다'는 다른 사람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주어가 스스로 한글을 익힌 경우에는 '한글을 깨치다'라고 표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놔'는 '놓아'가 줄어든 말이므로 '이 손 놔!'는 바른 표현이다.
② X — '스스로 깨우쳤다'가 잘못되었다. 동생이 스스로 한글을 익혔다는 뜻이므로 '내 동생은 한글을 스스로 깨쳤다.'로 고쳐야 한다. '깨우치다'는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한다는 뜻이다.
③ O — '씌우다'는 누명이나 죄 등을 남에게 덮어 맡게 한다는 뜻으로, '누명을 씌우다'는 바른 표현이다.
④ O — '에다'는 칼로 도려내듯 베다는 뜻이며, '가슴을 에는 듯한 슬픔'은 가슴이 베이는 것처럼 매우 아픈 슬픔을 나타내는 바른 표현이다.
⑤ O — '쇠다'는 명절이나 생일 등을 맞아 지내다는 뜻이므로 '생일을 잘 쇠서'는 문맥과 표기가 모두 바르다.

오답 포인트

②의 '스스로'만 보고 문장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깨우치다'는 남을 깨닫게 하는 말이고, 주어 자신이 글이나 이치를 터득할 때에는 '깨치다'를 써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체가 스스로 배우고 터득하면 '깨치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면 '깨우치다'로 판단한다.
줄임말이나 활용형은 기본형을 복원한 뒤 그 뜻이 문맥에 맞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스스로 깨치고, 남을 깨우친다.

NoteBase

13. 다음 중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① 놀놀하다, 숙덕이다, 볍씨, 너부렁이
② 누누이, 깜짝이다, 댑싸리, 땟갈
③ 꺼름하다, 번득이다, 수탉, 겸연쩍다
④ 쓱싹쓱싹, 새벽별, 안팎, 익살꾼
⑤ 짭잘하다, 헐떡이다, 접때, 뒤꿈치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여러 어형 가운데 표준어로 인정된 형태와 비표준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원칙으로 정한 공용어이다. 비슷한 형태가 함께 널리 쓰이면 복수 표준어가 될 수 있지만, 한 형태만 널리 쓰이면 그 형태만 표준어로 인정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늘놀하다, 숙덕이다, 볍씨, 너부렁이는 모두 표준어이다. 특히 '볍씨'는 '벼'와 '씨'가 결합한 표준어이며, '너부렁이'는 '나부랭이'와 함께 인정되는 복수 표준어이다.

② X
'누누이, 깜짝이다, 댑싸리'는 표준어이지만 '땟갈'은 비표준어이다. 틀린 표현 '땟갈'은 '때깔'로 고쳐야 한다.

③ X
'번득이다, 수탉, 겸연쩍다'는 표준어이지만 '꺼름하다'는 비표준어이다. 틀린 표현 '꺼름하다'는 '꺼림하다' 또는 '께름하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쓱싹쓱싹, 안팎, 익살꾼'은 표준어이지만 '새벽별'은 비표준어이다. 틀린 표현 '새벽별'은 '샛별'로 고쳐야 한다.

⑤ X
'헐떡이다, 접때, 뒤꿈치'는 표준어이지만 '짭잘하다'는 비표준어이다. 한 단어 안에서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으므로 '짭잘하다'는 '짭짤하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익숙하게 들리는 '땟갈, 새벽별, 짭잘하다'를 표준어로 오인하거나, 낯선 '볍씨, 너부렁이'를 비표준어로 판단하기 쉽다. 이 문제는 단어의 친숙함이 아니라 규범상 인정 여부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묶음의 단어를 하나씩 확인하여 비표준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선지를 제외한다. 비슷한 형태가 함께 제시되면 복수 표준어인지, 한 형태만 인정되는 단수 표준어인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땟갈×→때깔○, 꺼름하다×→꺼림하다·께름하다○, 새벽별×→샛별○, 짭잘하다×→짭짤하다○로 기억한다.

NoteBase

14. <보기1>을 참고할 때, <보기2>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1>

우리말의 높임법은 화자가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주체 높임법,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 청자인 상대방을 높여 말하는 상대 높임법 등이 있다.

<보 기 2>

㉠ 할아버지께서는 귀가 어두우시다.
㉡ 저는 그 책을 선생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 지금 대통령께서는 각 부처 담당자들과 회의 중이십니다.

① ㉠에는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② ㉠과 ㉡에는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③ ㉠과 ㉢에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④ ㉡에는 객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⑤ ㉡과 ㉢에는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을 높임의 대상과 실현 표현에 따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체 높임법: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 등이 쓰인다.
객체 높임법: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 등이 쓰인다.
상대 높임법: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습니다'는 듣는 이를 높이는 격식체 종결 표현이다.
핵심 대비: 주체 높임은 행동·상태의 주체, 객체 높임은 행동이 미치는 대상, 상대 높임은 대화의 듣는 이를 높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은 '할아버지께서는'의 '께서'와 '어두우시다'의 '-시-'로 할아버지를 높인 주체 높임법만 사용되었다. 틀린 표현은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이며, 올바르게는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이다.
② X — ㉠에는 주체 높임법이 쓰였지만, ㉡의 주체 '저'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에서는 '선생님께'와 '드리다'로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틀린 표현은 '㉠과 ㉡에는 주체 높임법'이며, 올바르게는 '㉠에는 주체 높임법이, ㉡에는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이다.
③ X — ㉢의 '-ㅂ니다'에는 상대 높임법이 쓰였지만, ㉠의 종결 어미 '-다'는 듣는 이를 높이는 표현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과 ㉢'이며, 올바르게는 '㉢에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이다.
④ O — ㉡의 '선생님께'와 '드렸습니다'의 '드리다'는 선물을 받는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고, 종결 어미 '-습니다'는 듣는 이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다.
⑤ X — ㉡에는 객체 높임법이 쓰였지만, ㉢은 '대통령께서는'과 '회의 중이십니다'의 '-시-'로 대통령을 높인 주체 높임법이다. 틀린 표현은 '㉡과 ㉢에는 객체 높임법'이며, 올바르게는 '㉡에는 객체 높임법이, ㉢에는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이다.

오답 포인트

'께서'와 '께'를 혼동하기 쉽다. '께서'는 높이는 주체에 붙는 주격 조사이고, '께'는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높이는 부사격 조사이다. 또한 '-시-'는 주체를, 문장 끝의 '-습니다'는 듣는 이를 높인다는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높임의 대상을 찾는다. 행동·상태의 주체이면 주체 높임, 행동이 미치는 목적어나 부사어이면 객체 높임, 대화의 듣는 이이면 상대 높임으로 판단한다. 이어서 '께서·-시-', '께·드리다', 높임 종결 어미가 각각 쓰였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께서·-시-는 주체, 께·드리다는 객체, -습니다는 상대 높임이다.

NoteBase

15. 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동안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노동 3권을 보장하여 노사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산업민주주의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은 상시 고용, 사업장 출퇴근, 8시간 정규노동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표준적 고용관계를 해체시키고, 노동법과 사회복지가 적용되기 어려운 비정형 노동을 확대시키고 있다.

플랫폼 기업 측에서는, 플랫폼은 일종의 중개이므로 자신들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플랫폼 노동자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제공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업무시간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업무의 자주성을 갖지만, 동시에 플랫폼의 통제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플랫폼에서 일할 때 노동과정에 대해, 플랫폼 기업은 보상 메커니즘과 업무설계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접근성, 편리성, 저렴한 가격, 일자리 창출 등의 장점이 있고, 참가자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효과로 생태계가 구축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플랫폼 노동에 대해 정부 차원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 노동기본권 부여, 사회안전망 마련 등이 절실하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이 플랫폼 노동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이 신기술과 사업모델 혁신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한다면 환영하겠다. 그러나 앱과 인터넷으로 노동을 매개하는 형식만 바꿀 뿐 기존 사업과 별 차이 없이 중간착취와 불안정노동을 지속한다면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중간착취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회적 통제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① 플랫폼 노동자는 업무의 자주성을 갖는 동시에 플랫폼의 통제도 받는다.
②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복지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③ 플랫폼 노동의 긍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④ 플랫폼 기업은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 노동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⑤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자주성과 플랫폼 기업의 실질적 통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글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플랫폼 노동은 앱이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노동자는 노동 제공 여부와 업무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지만, 플랫폼 기업이 보상 메커니즘과 업무 설계로 노동 과정을 유도하므로 완전히 독립적인 계약 관계라고만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글은 플랫폼 노동자가 어느 정도 업무의 자주성을 가지면서도 플랫폼의 통제를 받는다고 직접 설명한다.
② O — 글은 플랫폼 노동이 노동법과 사회복지가 적용되기 어려운 비정형 노동을 확대한다고 하므로, 사회복지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해가 적절하다.
③ O — 글은 플랫폼 노동의 긍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의, 노동기본권 부여, 사회안전망 마련과 사회적 통제·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이해가 적절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 노동의 독립성을 보장한다'이다. 실제로는 플랫폼 기업이 보상 메커니즘과 업무 설계로 노동자가 자연스럽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노동 과정을 통제한다.
⑤ O — 글은 플랫폼의 접근성·편리성·저렴한 가격 등의 장점과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 제공 여부와 업무 시간을 정한다는 앞부분만 이용해 '독립성 보장'이라고 바꾼 선지이다. 그러나 글은 바로 이어 플랫폼 기업의 보상 메커니즘과 업무 설계를 노동 통제의 수단으로 제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본문의 인과관계와 평가 방향을 선지와 대조한다. 이 글에서는 '노동자의 제한적 자주성'과 '플랫폼의 실질적 통제'가 함께 성립하며, 보상 메커니즘은 독립성 보장이 아니라 통제의 근거이다.

암기 포인트

플랫폼 노동은 자주성이 일부 있지만, 보상과 업무 설계를 통한 통제도 받는다.

NoteBase

16.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천연두는 공기로도 전염되어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매우 높아 오랫동안 공포의 대상이었다. 고대 중국과 인도의 의사들은 한 번 천연두에 걸렸던 사람은 이 병에 다시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약하게 천연두를 앓고 나면 이후 천연두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들은 천연두 환자의 딱지를 말려 가루로 만들었다. 그리고 은으로 만든 관을 사용해 대상이 남자일 경우 왼쪽 콧구멍으로, 여자일 경우 오른쪽 콧구멍으로 딱지 가루를 넣었다.
>
> 한편, 아랍인들은 팔에 칼로 작은 상처를 내고 천연두의 농포에서 얻은 물질을 절개 부위 안으로 밀어 넣는 인두법을 고안했다. 이 방법은 1700년대에 영국으로 전파되었는데, 당시 영국의 공주를 비롯한 귀족 자녀들이 접종을 하고 효과를 나타내며 널리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잘못된 접종 방법으로 인해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였다. 영국의 일부 의사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접종하기 6주 전부터 환자에게서 피를 뽑고 설사를 시키며 저열량식을 주었다.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받는 접종은 곧 독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잘못된 관행은 약 30년 동안 지속되었다.
>
> 1773년 에드워드 제너는 소에게 발생하는 천연두인 우두에 인간이 감염되어 가볍게 앓고 나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두균은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항체가 천연두균에 대해서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우두법이 개발됨에 따라, 인류는 점차 천연두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① 접종을 하기 전 피를 뽑음으로써 인체에 항체가 더욱 잘 생성될 수 있었겠군.

② 영국인들은 천연두 농포에서 얻은 물질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고 믿었겠군.

③ 영국의 잘못된 접종 방법은 공주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나서야 사라질 수 있었겠군.

④ 인체에 투입된 우두균이 항체가 되어 천연두의 전염을 막는 것이군.

⑤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천연두 환자의 딱지 가루를 흡입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졌겠군.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문에 직접 제시된 사실과 그로부터 타당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추론은 지문의 정보 사이에 드러난 인과 관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 글의 핵심 인과 관계는 '채혈·설사·저열량식 → 면역력 저하 → 접종의 부작용 위험 증가'이다. 반면 지문에 없는 주체·사건을 덧붙이거나, 원인과 결과를 바꾸거나, 한 대상이 다른 대상으로 변한다고 해석하면 타당한 추론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접종 6주 전부터 피를 뽑고 설사를 시킨 관행은 환자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접종이 독이 될 수 있게 한 잘못된 방법이다. '항체가 더욱 잘 생성될 수 있었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접종의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었다'이다.

② X

성별에 따라 딱지 가루를 넣는 콧구멍을 달리한 것은 고대 중국과 인도의 의사들이다. 영국인들이 천연두 농포의 물질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고 믿었다는 내용은 없다. 올바르게는 '고대 중국과 인도의 의사들은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콧구멍에 딱지 가루를 넣었다'이다.

③ X

영국 왕실을 비롯한 귀족 자녀들이 접종하여 효과가 나타나자 접종법은 널리 퍼졌다. 공주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뒤에야 잘못된 방법이 사라졌다는 내용은 없다. 올바르게는 '귀족 자녀들의 접종 효과로 접종법이 널리 퍼졌지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관행은 약 30년 동안 지속되었다'이다.

④ X

우두균 자체가 항체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우두균에 감염되었을 때 인체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천연두균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올바르게는 '우두균의 감염에 대응하여 인체가 만든 항체가 천연두의 전염을 막는 데 효과를 발휘한다'이다.

⑤ O

지문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받는 접종이 독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천연두 환자의 딱지 가루를 흡입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추론은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성별에 따라 콧구멍을 달리했다'는 사실을 '물질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고 믿었다'로 과장하고 주체도 영국인으로 바꾼다. ④는 '우두균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관계를 '우두균이 항체가 된다'는 변환 관계로 왜곡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주체, 원인과 결과, 대상 사이의 관계를 지문의 문장과 대조한다. 지문에 없는 사건을 추가하거나 인과 관계를 뒤집은 선지는 제외하고, 지문에 제시된 인과 관계를 그대로 적용한 선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추론 선지는 '주체·인과·대상 관계'가 지문과 일치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면역력 저하 → 접종 부작용 위험 증가'가 핵심이다.

NoteBase

17. 다음 (가)~(라)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어빙 고프먼은 일반적인 용법과 달리 비인격이라는 범주를 사회적·법적 성원권의 상실과 연관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연극적인 맥락에서 사용한다. 이러한 접근은 혼란을 유발할 수 있지만, 분명한 장점 또한 지닌다.

(가) 하지만 이 얼굴은 우리 몸의 일부도 아니고, 영혼의 반영도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얼굴이 있는 듯이 행동하고, 우리의 얼굴에 대해 존중을 요구함으로써 얼굴이 실제로 거기 있게 해야 한다.

(나) 이를 통해 우리는 인격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현상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고프먼은 "얼굴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내부나 표면이 아니라, 만남을 구성하는 사건들의 흐름 속에 퍼져 있다."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얼굴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사람이 된다.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대방의 사람 연기에 호응하고, 그의 얼굴에 대해 경의를 표시하며, 그가 얼굴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말하자면 얼굴은 상호작용 속에서 가정되고 또 실현되는, 의례적 픽션이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 대해 의례를 행함으로써 서로를 사람으로 임명한다.

(라) 다시 말해 고프먼의 접근은 사람의 수행성을 강조한다. 사람은 단순한 법적 카테고리도 아니고, 사회화를 통해 어떤 속성들을 획득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상태도 아니다. 고프먼의 관점에서 사람이란 곧 연기자를 말하는데, 우리는 사회라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실제로 연기를 하면서 우리의 사람 자격을 확인받게 된다.

① (가)-(나)-(라)-(다)
② (나)-(가)-(다)-(라)
③ (나)-(다)-(라)-(가)
④ (다)-(가)-(나)-(라)
⑤ (다)-(나)-(가)-(라)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시어와 접속 표현을 근거로 고프먼의 '얼굴' 개념이 제시되고 확장되는 순서를 찾는 문제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나) → (가) → (다) → (라)

1. (나) — '이를 통해' 앞 문단의 내용을 받아 인격이 상호작용 속에서 현상한다는 점과 고프먼의 얼굴 개념을 제시한다.
2. (가) — '하지만'으로 전환하여 얼굴이 신체 일부나 영혼의 반영이 아님을 밝히고,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얼굴을 실제로 성립시켜야 한다고 설명한다.
3. (다) — '마찬가지로' 앞의 '우리의 얼굴'에 관한 설명을 상대방의 얼굴로 확장하여, 서로의 얼굴을 유지하게 돕는 상호적 의례를 설명한다.
4. (라) — '다시 말해' 앞의 내용을 수행성의 관점에서 요약하여, 사회라는 무대에서 연기함으로써 사람 자격을 확인받는다고 정리한다.

왜 이 순서인가: (가)의 '이 얼굴'은 (나)에서 제시한 얼굴을 받아야 하고, (다)의 '마찬가지로'는 (가)의 우리 얼굴에 대한 설명을 상대방에게 확장하며, (라)의 '다시 말해'는 앞선 논의를 종합하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의 '이 얼굴'이 가리킬 얼굴 개념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채 글이 시작되고, (나)의 '이를 통해'도 앞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지 못한다. 틀린 순서 '(가)-(나)-(라)-(다)'는 '(나)-(가)-(다)-(라)'로 고쳐야 한다.

② O — (나)에서 얼굴 개념을 제시한 뒤, (가)에서 그 성격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다)에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으로 확장한 다음, (라)에서 수행성으로 요약한다.

③ X — (다)의 '마찬가지로'가 비교·확장할 앞 내용 없이 먼저 나오며, (가)의 '하지만'도 마지막에 놓여 논리적 대상을 잃는다. 틀린 순서 '(나)-(다)-(라)-(가)'는 '(나)-(가)-(다)-(라)'로 고쳐야 한다.

④ X — (다)의 '마찬가지로'와 '상대방'은 앞서 설명된 우리의 얼굴 및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므로 첫 문단이 될 수 없다. 틀린 순서 '(다)-(가)-(나)-(라)'는 '(나)-(가)-(다)-(라)'로 고쳐야 한다.

⑤ X — (다)를 (나)보다 앞세우면 '마찬가지로'가 받을 내용이 없고, (가)를 (라)보다 뒤에 두면 요약 표현인 '다시 말해'가 세부 설명보다 먼저 나오게 된다. 틀린 순서 '(다)-(나)-(가)-(라)'는 '(나)-(가)-(다)-(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나)의 '이를 통해'만 보고 첫 문단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도입부에 제시된 고프먼의 접근을 받을 수 있고, (나)는 뒤의 '이 얼굴'이 가리키는 핵심 개념을 처음 제시한다. 또한 (다)의 '마찬가지로'는 (가)의 '우리의 얼굴'과 짝을 이루어 '상대방의 얼굴'로 논의를 확장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 배열 문제는 먼저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고, '하지만'의 대조 대상, '마찬가지로'의 병렬 대상, '다시 말해'의 요약 대상을 차례로 연결한다. 개념 제시 → 성격 설명 → 관계의 확장 → 요약의 흐름이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이 얼굴’은 개념 제시 뒤, ‘마찬가지로’는 대응 내용 뒤, ‘다시 말해’는 요약할 내용 뒤에 온다.

NoteBase

18.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

① 일상적 수준의 시어로 심층적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②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청자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③ 남성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④ 특정 어구를 반복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죽음을 미화하고 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의 표현 방식이 주제 형상화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특히 반복, 청유형 어미, 역설적 표현의 기능을 작품의 맥락과 연결해야 한다.

NoteBase

핵심 개념

반복은 같은 시어나 문장을 되풀이하여 의미와 운율을 강조하는 표현 방식이다. 청유형 어미 '-자'는 화자가 청자와 함께 행동하기를 바라는 뜻을 나타낸다. 역설은 겉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을 통해 그 안의 진실이나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 시에서 '눈은 살아 있다'는 표현은 눈에 생명성을 부여하여 순수한 생명력과 현실에 맞서는 의지를 드러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처럼 쉬운 일상어를 사용하면서도 순수한 생명력과 현실에 맞서는 의지라는 깊은 주제를 형상화한다.
② O — '기침을 하자', '마음껏 뱉자'의 청유형 어미 '-자'는 화자만의 독백에 머물지 않고 청자가 행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끈다.
③ O — 짧고 단호한 문장과 명령에 가까운 청유 표현을 사용하여 '기침을 하자'는 화자의 강한 실천 의지를 부각한다.
④ O — '눈은 살아 있다'와 '기침을 하자'를 반복하면서 눈의 생명성을 확인하고, 그 생명력을 행동의 의지로 이어 가며 시상을 전개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죽음을 미화하고 있다'이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와 같은 역설적 표현은 죽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무감각에 맞서는 눈의 순수한 생명성과 화자의 저항 의지를 강조한다.

오답 포인트

'죽음'이라는 시어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역설의 효과를 죽음의 미화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표현의 효과는 소재 하나가 아니라 앞뒤 맥락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이 시의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마음껏 뱉자'는 죽음의 찬미가 아니라 생명성과 실천 의지를 강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법을 찾은 뒤 그 효과가 작품의 정서와 주제에 맞는지 확인한다. 반복은 무엇을 강조하는지, 청유형은 누구의 동참을 이끄는지, 역설은 겉보기의 모순을 통해 어떤 본뜻을 드러내는지를 앞뒤 시어와 연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 시의 핵심은 '살아 있는 눈 = 순수한 생명력', '기침을 하자 = 현실에 맞서는 실천 의지'이다. 역설은 죽음의 미화가 아니라 생명성과 저항 의지의 강조이다.

NoteBase

19.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난
>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난
> 위 증즐가 태평성대
>
>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난
> 위 증즐가 태평성대
>
> 잡사와 두어리마나는
> 선하면 아니 올세라
> 위 증즐가 태평성대
>
> 설온 님 보내옵나니 나난
> 가시는 듯 돌아 오소서 나난
> 위 증즐가 태평성대

① 남녀 간의 사랑과 원망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② 한 행의 길이를 일정하게 맞추고 있다.
③ 하나의 문장을 인위적으로 잘라 연을 구분하는 현상을 보인다.
④ 함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일시키는 기능을 하는 시구가 나타난다.
⑤ 기-승-전-결의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고려가요 「가시리」에 나타난 화자의 이별 정서, 연과 행의 구성, 여음구의 기능, 내용 전개 방식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가시리」는 떠나는 임을 원망하면서도 붙잡지 못하고,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노래한 고려가요이다. 각 연은 세 행으로 구성되며, 반복되는 표현과 여음구가 일정한 형식과 리듬을 만든다. '위 증즐가 태평성대'와 같은 여음구는 내용과 직접 연결되기보다 노래의 흥과 리듬을 살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화자는 임에게 버림받는 데 대한 원망을 드러내면서도 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사랑과 원망이 함께 나타난다.
② O — 각 연이 세 행으로 이루어지고 '나난', '위 증즐가 태평성대'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행의 길이와 리듬이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하나의 문장을 인위적으로 잘라 연을 구분한다'이다. 이 작품의 연은 한 문장을 기계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이별의 확인, 떠나는 임에 대한 하소연, 붙잡고 싶은 마음의 억제, 재회를 바라는 소망이라는 내용 전개에 따라 구분된다. 올바르게는 '내용의 단계적 전개와 반복되는 형식에 따라 네 연이 구분된다'라고 해야 한다.
④ O — '위 증즐가 태평성대'는 되풀이되는 여음구로, 노래의 리듬과 흥을 살리고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일하는 기능을 한다.
⑤ O — 첫째 연의 이별 확인과 원망, 둘째 연의 하소연, 셋째 연의 내적 갈등, 넷째 연의 이별 수용과 재회 소망이 네 단계로 전개되어 기·승·전·결의 짜임을 이룬다.

오답 포인트

③은 작품이 여러 연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문장을 인위적으로 잘랐다'는 설명과 혼동하게 만든다. 연 구분은 문장의 단순한 절단이 아니라 정서와 내용의 단계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의 형식을 판단할 때에는 먼저 반복되는 행·여음구를 확인하고, 각 연의 내용이 독립된 정서 단계로 전개되는지 살핀다. 연마다 내용의 변화가 확인되면 한 문장을 인위적으로 자른 구성으로 보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가시리」는 이별의 원망과 사랑, 4연의 단계적 전개, 반복되는 여음구가 핵심이다.

NoteBase

20. 다음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말대가리 윤용규 그는 삼십이 넘도록 탈망바람으로 삿갓 하나를 의관 삼아 촌 노름방으로 으실으실 돌아다니면서 개평푼이나 뜯으면 그걸로 돌아앉아 투전장이나 뽑기, 방퉁이질이나 하기, 또 그도 저도 못하면 가난한 아내가 주린 배를 틀어쥐고서 바느질품을 팔아 어린 자식과(이 어린 자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의 윤직원 영감입니다.) 입에 풀칠을 하는 것을 얻어먹고는, 밤이나 낮이나 질펀히 드러누워, 소대성이 여대치게 낮잠이나 자기…… 이 지경으로 반생을 살았습니다. 좀 호협한 구석이 있고 담보가 클 뿐 물론 판무식꾼이구요.
>
> 그런데, 그런 게 다 운수라고 하는 건지 어느 해 연분인가는 난데없는 돈 2백 냥이 생겼더랍니다. 시골돈 2백 냥이면 서울돈으로 2천 냥이요, 그때만 해도 웬만한 새끼부자 하나가 왔다갔다 할 큰 돈입니다.
>
> 노름을 해서 딴 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그 아내가 친정의 머언 일가집 백부한테 분재를 타온 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도깨비가 져다 준 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 자못 출처가 모호했습니다.
>
> 시방이야 가난하던 사람이 불시로 큰 돈이 생기면 경찰서 양반들이 우선 그 내력을 밝히려 들지만, 그때만 해도 60년 저짝 일이니 누가 지날 말로라도 시비 한마딘들 하나요. 그저 그야말로 도깨비가 져다 주었나 보다 하고 한갓 부러워하기나 했지요.
>
> - 채만식, 「태평천하」에서 -

① 현재의 사건을 작중인물이 회상하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② 서술자가 작중인물에 대해 풍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③ 1인칭의 서술자가 작중인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④ 판소리에서 창자와 같은 작중인물이 등장해 사건을 주도한다.
⑤ 서술자가 작중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서술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서술자가 작중 인물과 어떤 거리를 두고 사건과 인물을 서술하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풍자적 거리란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긍정하지 않고, 과장·반어·논평을 통해 그 인물의 모순이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내는 서술 태도이다. 이 글의 서술자는 윤용규가 부정하게 얻은 돈을 두고 '운수'라 여기고 출처만 궁금해하는 모습을 익살스럽고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현재의 사건을 작중 인물이 회상하는 방식이 아니다. 서술자가 윤용규의 과거 행적과 뜻밖의 돈이 생긴 사건을 직접 서술한다. 틀린 표현 '작중인물이 회상하는 방식'은 '서술자가 과거 사건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서술자는 윤용규의 가난과 탐욕을 과장되고 익살스러운 어조로 보여 주며, 그의 태도를 긍정하지 않고 비판한다. 따라서 작중 인물과 풍자적 거리를 유지한다.
③ X — 1인칭 서술자가 아니며, 윤용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도 않는다. '웬만한 새끼부자', '도깨비가 쥤었나' 같은 표현에는 서술자의 주관적이고 풍자적인 논평이 담겨 있다. 틀린 표현 '1인칭의 서술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3인칭 서술자가 주관적 논평을 곁들여 풍자적으로 제시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판소리의 창자와 같은 서술자가 작중 인물로 등장하여 사건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의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서 윤용규의 행적을 전달하고 논평한다. 틀린 표현 '창자와 같은 작중인물이 등장해 사건을 주도한다'는 '판소리의 창자처럼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며 논평한다'로 고쳐야 한다.
⑤ X — 서술자는 윤용규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를 깊이 서술하기보다 그의 행적을 요약하고 직접 논평한다. 틀린 표현 '작중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는 '작중인물의 행동과 처지를 요약하고 논평하며'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서술자가 인물의 생각과 사정을 자세히 안다고 해서 곧바로 1인칭 서술이나 내면 중심 서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의 윤직원 영감입니다'처럼 서술자가 인물을 소개하고, 인물의 탐욕을 익살스럽게 비꼬는 논평이 두드러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술자의 인칭, 인물의 내면 제시 여부, 인물을 대하는 태도를 나누어 확인한다. 과장·반어·비꼬는 논평이 인물의 결함을 드러내면 서술자가 그 인물과 풍자적 거리를 둔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인물을 비꼬며 결함을 드러내면 풍자적 거리, 인물의 생각을 깊이 따라가면 내면 초점이다.

NoteBase